

실버의류브랜드 치수체계와 KS 규격간의 비교 분석

이 명희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An Analysis of the Sizing System of Silver Apparel Brands as Compared with the KS Standards

Myung-Hee Lee

Division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6. 7. 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ison on the sizing system in silver apparel brands with the KS standards. For the comparison research, 3 women's wear brands (suit style, knitted suit style, casual style) which were different apparel style on occasion in madame-zone of department stores were selected.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of sizing system of these brands were the label. The results of the sizing system of silver apparel brands as compared with the KS standards were as follows: 1) For the upper wear of suit style, it is larger than KS standards that size of height is 5~15 cm. 2) For the lower wear of suit style, suitability of size of hip circumference is lower than KS standards. 3) For the casual style, it is larger than KS standards that size of height is 10~20 cm.

Key words : Sizing system(치수체계), Silver apparel(실버의류), KS standards(KS 규격)

I. 서 론

한국패션 총람(2002)에 나타난 국내 패션 브랜드 현황에서 여성복 브랜드는 462개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새롭게 브랜드가 생겨나거나 사라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캐쥬얼 등의 젊은 세대를 위한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 전문 브랜드는 10%내외로 한정적이며 따로 구분되어 분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의 마담 실버브랜드의 대부분은 타깃 연령층을 40~50대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연령은 50~60대가 대부분이며, 70대 이상의 노

인 여성들도 많다. 기성복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서의 노인 연령의 구분은 생물학적인 신체의 변화 시기인 55세 이상, 6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백화점 조사에서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노인 또는 실버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마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여러 연령층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다¹⁾.

2004 사이즈 코리아를 통하여 한국인의 치수 규격은 소비자의 연령 재 구분 및 신수요 반영을 위하여 의류치수 관련 KS 규격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노년 여성을 위한 의류치수 규격은 노년 여성을 위한 체형 표준화 연구²⁾를 통하여 2002년도에 60세 이상의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이 반영된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의 치수(KS K 0055:2002)규격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 사이즈 코리아를 통하여 60대

*Corresponding author: Myung-Hee Lee
E-mail: leemh@pknu.ac.kr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 전기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 후기로 별도로 치수를 전개한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의 치수 개정안(KS K 0055: 2004)이 마련되었다. 이는 노년 여성의 경우 연령과 체형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의류 제조업체들도 60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결과이다³⁾. 이처럼 KS 규격 설정에서는 실버 여성 의류의 필요에 따라 노년 여성의 체형특성을 반영한 치수 규격을 설정하였으나, 최근에 연구된 노년 의생활 실태조사⁴⁾ 및 실버의류 기성복업체 실태조사⁵⁾에서는 여전히 실버의류의 치수적합성 및 KS 규격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정된 2004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노년 여성을 위한 치수체계와 실버의류 치수체계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 부터 현재의 실버의류 기성복업체에서 소비자 타겟에 맞는 치수체계 설정에 있어서 KS 규격을 활용하여 그 치수규격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적인 비교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실버의류 치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국내 실버브랜드의 치수체계

국내 브랜드 중에서 제품디자인과 상품의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도에서 앞서고 있으면서 노인 여성이 즐겨 입는 스타일을 기준으로 하여 포멀 정장류와 니트 정장류 그리고 스포츠 캐주얼로 노인복 브랜드를 세분화한 정삼호의 연구 결과⁶⁾에서 스타일별 대표 브랜드로 제시하고 있는 이동수 오리지널, 모라도, 슈페리어를 대상으로 각 브랜드별 의류 치수체계를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2005년 4월에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 스타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각 라벨에 제시된 신체치수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1) 정장 포멀 스타일(이동수 오리지널)

포멀 정장 스타일의 이동수 오리지널은 고품격 이미지를 위하여 심플 베이직한 정장라인과 화려한 프린트, 다양한 디테일의 캐주얼 라인과의 적절한 조화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프린트와 자수, 베이직한 아

<표 1> 정장류 의류 치수 (이동수 오리지널)

아이템	호칭	제품 신체치수(cm)
자켓, 코트	66	가슴둘레 91, 신장 160
	77	가슴둘레 94, 신장 165
	88	가슴둘레 100, 신장 170
스커트, 바지	28	허리둘레 71, 엉덩이둘레 99
	30	허리둘레 76, 엉덩이둘레 104
	32	허리둘레 81, 엉덩이둘레 109
	34	허리둘레 86, 엉덩이둘레 114
	36	허리둘레 91, 엉덩이둘레 119

웃 웨어와 화려한 이너 웨어를 조화시켜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1984년 이동수 패션으로 출발하였으며 타깃 연령층은 30~50세로 분류된다⁷⁾.

이동수 오리지널 정장의 아이템별 호칭 및 제품 신체치수는 <표 1>과 같다. 정장상의의 경우 66, 77, 88의 1980년대식의 구 호칭으로 표기되며, 신체치수는 호칭 간 5 cm간격의 신장 160~170 cm, 호칭 간 3 cm, 6 cm간격의 가슴둘레 91~100 cm의 3 치수체계로 나타났다. 정장 스커트, 바지의 경우 호칭은 28~36의 인치 표기식이며, 각 호칭 간 5 cm(2인치) 간격의 허리둘레 71~91 cm, 엉덩이둘레 99~119 cm의 5 치수체계로 나타났다.

2) 니트 정장 스타일(모라도)

니트 정장 스타일의 모라도(morado)는 니트라는 소재의 장점을 편안한 착용감과 기품이 있는 디자인에 두고 엘레강스한 라인을 전개하여 30여년이 넘게 중년 여성층을 타깃으로 니트 전문 브랜드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브랜드 컨셉은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로 로맨틱하고 폐미난한 무드의 강한 영향을 받아 보다 감각적인 패션을 창출하는 정통 니트 브랜드이다⁸⁾.

모라도 니트 정장의 아이템별 호칭 및 제품 신체치수는 <표 2>와 같다. 호칭은 1980년대식의 구 호칭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제품 신체치수의 경우 자켓은 호칭 간 5 cm간격의 가슴둘레 90~105 cm, 키 160~170 cm인 4 치수체계로 나타났으며, 코트는 호칭 간 6 cm간격의 가슴둘레 94~106 cm와 호칭 간 5 cm간격의 키 160~170 cm로 나타났다. 바지는 호칭 간 6 cm간격의 허리둘레 76~94 cm, 호칭 간 치수간격 8 cm, 4 cm, 6 cm인 엉덩이둘레 98~116 cm의 4 치수체계

<표 2> 니트 정장류 의류치수 (모라도)

아이템	호칭	제품 신체치수(cm)
자켓	66	가슴둘레 90, 키 160
	77	가슴둘레 95, 키 165
	88	가슴둘레 100, 키 170
	99	가슴둘레 105, 키 170
코트	66	가슴둘레 94, 키 160
	77	가슴둘레 100, 키 165
	88	가슴둘레 106, 키 170
바지	66	허리둘레 76, 엉덩이둘레 98
	77	허리둘레 82, 엉덩이둘레 106
	88	허리둘레 88, 엉덩이둘레 110
	99	허리둘레 94, 엉덩이둘레 116
스커트	66	허리둘레 76
	77	허리둘레 82
	88	허리둘레 88

로 나타났고, 스커트는 호칭 간 6 cm간격의 허리둘레 76~88 cm의 3 치수체계로 나타났다.

3) 캐주얼 스타일(슈페리어)

우리나라 노년 여성의 캐주얼한 스타일은 대부분 골프 브랜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1년에 런칭된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의 슈페리어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액티브한 컬러, 최고의 품질로 차별화된 패션을 추구하고 있으며, 골프뿐만 아니라 각

<표 3> 캐주얼 의류치수 (슈페리어)

아이템	호칭	제품 신체치수(cm)
상의 (점퍼, 티셔츠)	90	가슴둘레 90
	95	가슴둘레 95
	100	가슴둘레 100
	105	가슴둘레 105
하의	26	허리둘레 67
	27	허리둘레 70
	28	허리둘레 73
	30	허리둘레 76
	32	허리둘레 79
	33	허리둘레 82
	34	허리둘레 85
	36	허리둘레 88

종 스포츠 레저용으로 입을 수 있는 브랜드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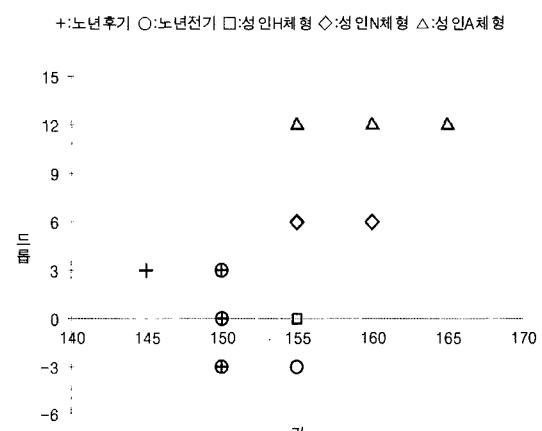
슈페리어 캐주얼 의류의 아이템별 호칭 및 제품 신체치수는 <표 3>과 같다. 캐주얼 상의는 호칭 간 5 cm 치수간격으로 90, 95, 100, 105 호칭의 4 치수체계였으며, 바지의 경우 호칭은 26~36의 인치 표기식이며 각 호칭 간 치수간격은 정장바지의 치수간격인 3 cm의 편차로 67~88 cm의 8 치수체계로 나타났다.

2. 실버의류브랜드의 치수체계와 KS 규격간의 비교

한국산업규격에 나타난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부 치수와 성인여성복의 치수 규격에서 연령대별 의류 치수 드롭과 키의 분포로부터 노인여성의 체형 특성을 파악하고, KS 치수규격과 국내 실버브랜드의 의류 종류별 치수체계 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치수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 연령대별 KS 규격에 나타난 정장상의의 주요 드롭과 키의 특성

성인여성복의 치수(KS K 0051:2004)¹⁰⁾,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KS K 0055:2004)¹¹⁾에서 피트성이 필요한 정장상의의 호칭 및 신체치수에서 분포율이 높은 호칭을 대상으로 각 체형별(N 체형, A 체형, H 체형) 성인여성과 노년 전후기 여성의 드롭(엉덩이 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과 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노년 여성의 경우 드롭 값 -3~3 의 H체형에 키는 145~155로 노년 후기로 갈수록 키



<그림 1> 연령대별 KS 규격에서의 정장 상의 주요치수의 드롭과 키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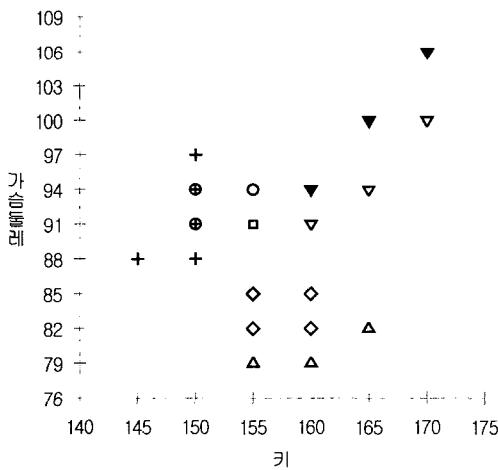
는 작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의 경우는 드롭 값 6의 보통 N체형, 드롭 값 0의 H체형, 드롭 값 12의 A체형으로 분류되며, A체형은 주로 10대 후반과 20대에 분포하는 체형으로 다른 체형 및 연령대에 비해 키가 큰 155~165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H체형은 주로 40대 후반과 50대에 분포하는 체형으로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과 유사하면서 키가 다소 큰 편으로 나타났다.

2) 실버의류브랜드의 복종별 치수규격의 적정성 검토

(1) 정장 상의의 치수규격 차이

성인여성복의 치수체계와 노인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체계에서 분포율이 높은 대상과 정장 포멀 스타일의 이동수 오리지널과 니트 정장스타일의 모라도 브랜드의 각 치수체계로부터 정장상의의 가슴둘레와 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실버 브랜드의 정장 상의의 치수규격을 살펴보면, KS 규격에 나타난 88~97 cm의 분포인 노인 여성의 가슴둘레 치수는 부분적으로 커버하고 있으나, 키의 경우 노인여성은 145~155 cm의 분포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실버브랜드는 160~170 cm의 분포로 5~15 cm정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의복의 길이치수가 노인 체형에 비해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치수체계는 여혜린, 권영숙^[12]의 노년 의생활 실태 조사결과에서처럼 노년 남녀의 기성복 수선부위

+ : 노년후기 ○ : 노년전기 □ : 성인H체형 ◇ : 성인N체형 △ : 성인A체형
▽ : 정장포멀스타일 ▼ : 니트정장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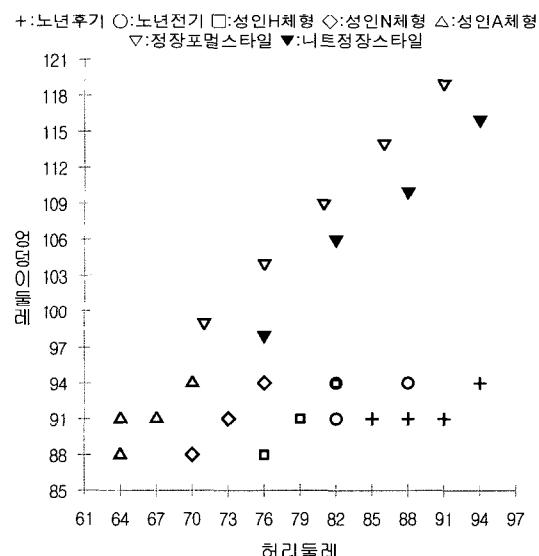


<그림 2> 정장 상의의 가슴둘레, 키의 치수규격

가 상의의 소매길이와 하의의 바지 길이의 수선요구가 높은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2) 정장 바지, 정장 스커트의 치수규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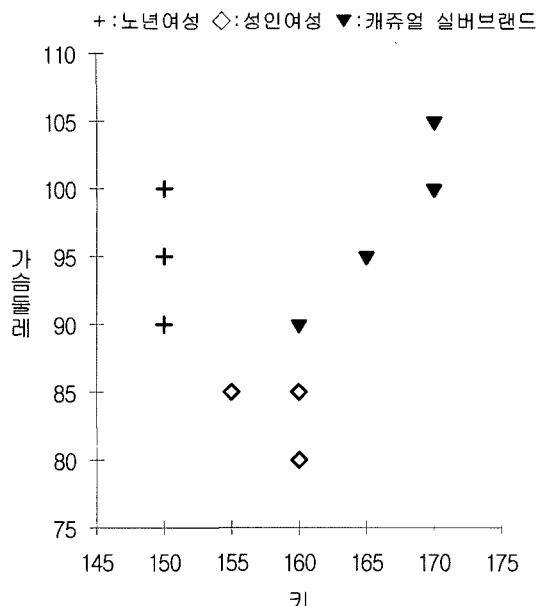
성인여성복의 치수체계와 노인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체계에서 분포율이 높은 대상과 정장 포멀 스타일의 이동수 오리지널과 니트 정장스타일의 모라도 브랜드의 각 치수체계로부터 정장 바지, 스커트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실버 브랜드의 정장 바지 및 스커트의 치수규격을 살펴보면, KS 규격에 나타난 82~94 cm의 분포인 노인 여성의 허리둘레 치수는 부분적으로 커버하고 있으나, 엉덩이 둘레의 경우 노인여성은 91 cm, 94 cm로 호칭 간 치수규격이 같거나 3 cm 편차로 가슴둘레 치수의 다양성에 비해 엉덩이둘레 치수는 유사한 치수체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버브랜드는 호칭간의 치수 간격이 4~8 cm의 분포로서 호칭규격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여성의 엉덩이치수규격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치수체계는 노인여성의 신체치수는 커버할 수 있으나, 착의적합성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하겠다.



<그림 3> 정장, 스커트, 바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규격

(3) 캐쥬얼 상의의 치수규격 차이

성인여성복의 치수체계와 노인여성을 위한 여성복



<그림 4> 캐주얼 상의의 가슴둘레, 키의 치수 규격

치수체계에서 분포율이 높은 대상과 캐주얼스타일의 슈페리어 브랜드의 치수체계로부터 캐주얼 상의의 가슴둘레와 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실버 브랜드의 캐주얼 상의의 치수규격을 살펴보면, KS 규격에 나타난 노인여성의 치수규격은 키 150 cm에 가슴둘레 90~100 cm 분포의 3 치수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실버브랜드의 치수규격은 키 160~170 cm, 가슴둘레 90~105 cm의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노인 여성의 가슴둘레 치수는 커버하고 있으나, 키에서는 10~20 cm의 길이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정장상의에 나타났던 결과와 같이 의복의 길이 치수가 노인 체형에 비해 실버브랜드가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어, 착의 불만족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정된 KS 규격을 바탕으로 노인여성과 성인여성의 체형 차를 비교하고, 각 복종별 치수규격과 실버의류브랜드의 치수규격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 실버의류브랜드의 치수체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S 치수규격에 나타난 노인 여성의 호칭별 신체치수에서 그 분포율이 높은 치수체계를 대상으로 각 규격을 분석한 결과, 노인 여성의 체형은 엉덩이 둘레와 가슴둘레의 드롭차가 낮은 H 체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KS규격과 실버브랜드간의 의류 종류별 치수 규격을 비교한 결과, KS 규격에서의 노인 여성의 키는 노인 전기(60세 이상 70세 미만)가 150~155 cm, 노인 후기(70세 이상)가 145~150 cm로 나타내고 있으나, 기성복 치수에서는 160~170 cm으로 그 길이 차이가 큼으로서, 의복치수에서 길이항목의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버의류브랜드의 치수실태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는 있으나, 실버의류 기성복업체에서 소비자 타겟에 맞는 치수 체계 설정에 있어서 KS 규격을 활용하여 그 치수규격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적인 비교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실버의류 치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이 의류업계에서의 새로운 구매집단으로 등장하고, 특히 중년이후 체형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노년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보완한 적절한 착의 성능을 지닌 노인층을 위한 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정삼호(2005). 국내외 실버 브랜드에서의 패션 트렌드 반영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p.1-17.
-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2). 노년 여성을 위한 체형 표준화(I) 최종보고서.
- 3) http://sizekorea.ats.go.kr/04_Application/03_SizeKS_2.asp. 2005. 2. 10.
- 4) 여혜린, 권영숙(2005). 노년기 의생활 실태 조사. 한국 의류학회지, 29(1), pp.177-188.
- 5) 정삼호, 김수아(2006). 실버의류 기성복업체의 실태조사 연구. 복식, 56(4), pp.15-32.
- 6) 정삼호(2005). ‘앞의 글’. pp.1-17.
- 7) 정삼호(2005). ‘앞의 글’. pp. 1-17.
- 8) 정삼호(2005). ‘앞의 글’. pp. 1-17.
- 9) 정삼호(2005). ‘앞의 글’. pp. 1-17.
- 10) KS K 0051:2004, 성인 여성복의 치수.
- 11) KS K 0055:2004,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 12) 여혜린, 권영숙(2005). ‘앞의 글’. pp. 177-188.